

한국의 사회동향

Korean Social Trends 2025

<https://mods.go.kr/sri>

2025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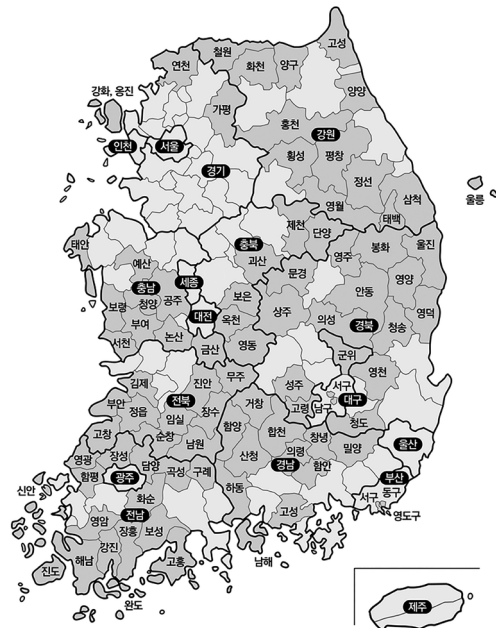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동 주요 특성

정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인구감소지역 지정 시 활용된 인구감소지수의 세부 8개 구성 지표를 추정하여 살펴본 결과, 고령화 비율을 제외한 7개의 지표에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은 전국 평균에 비하여 낮다는 특성이 도출되었다.
- 인구감소지역 인구의 자연적 감소는 총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나타난 시점인 2020년보다 20여 년 먼저 시작되었다. 지난 20여 년간(2001~202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이 가장 낮은 네 개 지역 중에서 두 개 지역은 2000년 이전부터 자연적 감소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감소지역 인구의 사회적 감소는 특히 20대 연령층의 지속적인 순유출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지난 20여 년간(2001~2020년) 연평균 인구증감률이 가장 낮은 네 개 지역 모두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20대 연령층의 순유출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20% 표본 자료를 활용하여 인구감소지역을 떠나는 이들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특히 20대 연령층과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4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월평균 생활인구 규모는 주민등록인구 규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평균 생활인구 비율이 높은 상위 지역은 대체로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면서 휴양, 관광에 특화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가 감소함(국가데이터처, 2022.7.28.)에 따라 본격적인 인구 감소 국가가 되었다. 이러한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 인구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지역 인구의 감소도 중요한 사회적 당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2021년 10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이후 18개

[그림 i-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2021년 10월 지정)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에 자연적 감소가 나타났고(국가데이터처, 2021.2.24.), 이후 2021년부터 총

출처: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89곳 지정, 지방살리기 본격 나선다. 보도자료, 2021.10.18. (웹페이지: 「인구감소지역 지정」)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2025.7.



관심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였다(행정안전부 웹 페이지).

이들 지역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으로서 지역별 다양한 범주의 특례 제공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차등적 배분은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의 실례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여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자연적 감소가 2000년 이전 등 비교적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 등에서 시행하는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최근의 정책 대응은 적기에 이루어졌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본격적 정책 대응이라는 점에서 분명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장인수, 2024).

요컨대, 지역 인구 감소는 어느 시점에 갑자기 촉발된 일시적 특성이 아니라 인구변동의 근원적 특성과 맞물려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결과적 양상이라는 성격이 뚜렷하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인구감소지역¹⁾의 인구변동 양상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이동과 관련된 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이들 지역의 인구 감소 대응 정책의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생활인구와 관련하여 이들 지역의 생활인구가 어떤 집계 특성을 띠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1)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2021년 10월 지정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칭함.

인구감소지수의 세부 지표로 본 인구감소지역 인구변동의 주요 특성

인구감소지역에서 나타나는 인구변동의 특성을 간명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이들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근거인 인구감소지수의 8개 세부 지표의 특성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인구감소지수는 다음의 <표 i-1>에서 확인할 수

<표 i-1> 인구감소지수의 8개 세부 지표

지표명	정의	지표 자료원
연평균 인구증감률	$\left(\frac{2020\text{년 인구}}{2001\text{년 인구}} \right)^{1/9} - 1$ $\left(\frac{2020\text{년 인구}}{2016\text{년 인구}} \right)^{1/4} - 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인구밀도	$\frac{\sum \text{총인구}}{\sum \text{행정구역면적}}$	국가데이터처, 행정구역 현황
청년 순이동률	$\frac{\sum \text{청년 순이동자수}}{\sum \text{청년 연앙인구수}}$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 통계
주간인구	상주인구 + (주간유입인구 - 주간유출인구)	국가교통DB, 통근·통학·업무 통행인구
고령화 비율	$\frac{\sum 65\text{세 이상 인구}}{\sum \text{총 인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유소년 비율	$\frac{\sum 14\text{세 이하 인구}}{\sum \text{총 인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조출생률	$\left(\frac{\sum \text{출생아수}}{\sum \text{연앙인구수}} \right) \times 1,000$ 특정 1년(7월 1일 기준)의 연앙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또는) 특정 1년간의 총 출생아 수를 해당 연도의 연앙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 비로 나타낸 것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재정자립도	$\left(\frac{\sum \text{자체수입}}{\sum \text{지자체 예산규모}} \right) \times 100$	행정안전부, 재정자립도

주: 1)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구역현황, 재정자립도의 경우 원출처는 국가데이터처로 기술되어 있지만 통계작성 기관이 행정안전부이므로 행정안전부로 수정하였음을 밝힘.

출처: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2025.7.

있는 것과 같이,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의 8개 지표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이들 지표는 대체로 인구 감소지역에서 나타나는 인구변동의 특성을 간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재정자립도와 같은 정책 추진 여건과 관련한 사항도 반영한다.

전국 228개 지자체(세종, 제주 포함)와 비교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세부 지표별 평균은 고령화 비율을 제외하면 해당 지표의 전국 평균에 비하여 낮다는 특성이 나타났다(표 i-2).

〈표 i-2〉 지역별 인구감소지수의 8개 세부 지표

지표명	인구감소지역	228개 시군구
연평균 인구증감률	-0.01%	0.00%
인구밀도	579.9명/km ²	3873.1명/km ²
청년 순이동률	-5.2%	-1.9%
주간인구	56,315.8명	220,008.0명
고령화 비율	28.8%	20.2%
유소년 비율	8.9%	11.4%
조출생률	4.7명/천 명	5.9명/천 명
재정자립도	15.9%	26.5%

주: 1) 인구감소지수 작성 통계를 활용해 저자가 직접 분석함.

2)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웹사이트의 연도를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최근 5년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세부 지표는 2016~2020년으로 설정함.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행정구역현황」,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국가교통DB, 「통근·통학·업무 통행인구」,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행정안전부, 「재정자립도」.

인구감소지역 인구의 자연적 증감, 사회적 증감

개방형 인구 균형방정식²⁾을 활용하여, 최근 24년간(2000~2023년) 인구감소지역 인구의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을 살펴보았다. 동기간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규모는 평균적으로 약 19,034.0명 감소하였으며, 자연적으로는 6,186.1명, 사회적으로는 12,847.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3). 이는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가 자연적 감소보다는 사회적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i-3〉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변화, 2000~2023

(명, %)					
인구감소지역(89개) 전체 시군구(228개)					
2000 ~ 2023	총인구 변화	-19,034.0	100.0	15,840.8	100.0
	자연적 증감	-6,186.1	32.5	15,562.8	98.2
	사회적 증감	-12,847.9	67.5	278.1	1.8
전반기 2000 ~ 2010	총인구 변화	-11,602.1	100.0	10,288.1	100.0
	자연적 증감	-1,505.7	13.0	11,927.2	115.9
	사회적 증감	-10,096.4	87.0	-1,639.1	-15.9
후반기 2011 ~ 2023	총인구 변화	-7,000.8	100.0	4,536.7	100.0
	자연적 증감	-4,680.4	66.9	3,635.6	80.1
	사회적 증감	-2,320.4	33.1	901.0	19.9

주: 1) 「주민등록인구현황」과 「인구동향조사」를 활용해 저자가 분석함.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각 연도.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추가로, 이들 지역 인구의 자연적, 사회적 감소를 전반기(2000~2010년)와 후반기(2011년~2023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전반기에는 평균적으로 사회적 감소의 비중이 높은 반면(13.0% < 87.0%), 후반기에는 평균적으로 자연적 감소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6.9%

2) 균형방정식이란 출산과 사망에 따른 자연적 인구 증감만 고려한 기존 인구 방정식과 달리 출산과 사망에 따른 자연적 인구 증감과 전출·전입 같은 지역 간 인구 이동에 따른 사회적 인구 증감을 모두 고려한 개방형(open) 인구를 표현하는 방정식임.



33.1%). 이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인구 감소지역 인구의 자연적, 사회적 증감의 특성은 사회적 감소가 자연적 감소를 전인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먼저 청년층의 사회적 감소가 오랜 기간 지속되었고 이후 출생아 수 감소와 더불어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남아 있는 이들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여 자연적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인구감소지역의 자연적 감소가 2000년대 이전부터 나타났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들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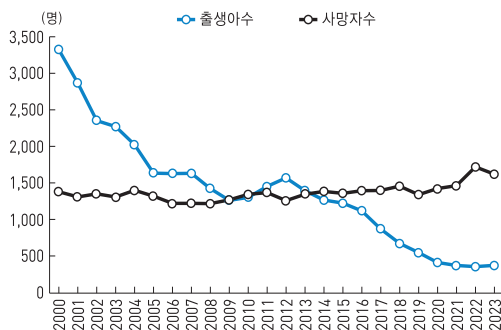
역의 사회적 감소와 밀접하게 관련된 청년층의 유출은 자연적 감소 시점보다 더 이전에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인구감소지역 중 사례 지역 인구의 자연적 증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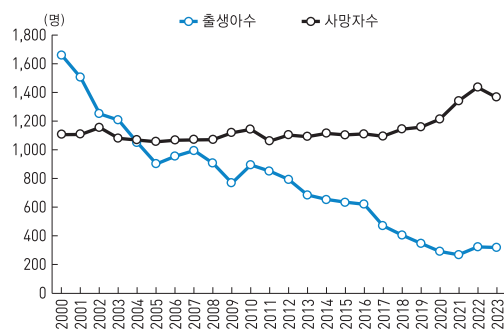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적지 않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약 20년 전부터 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i-2]는 인구

[그림 i-2] 인구감소지역 중 사례 지역 인구의 자연적 증감, 2000-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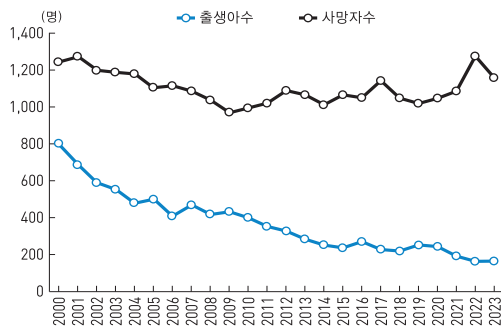
1) A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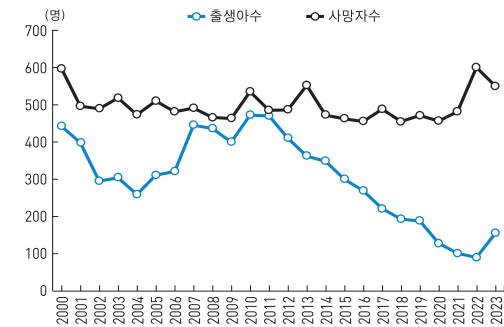
2) B 지역



3) C 지역



4) D 지역



주: 1) 국가데이터처의 「인구동향조사」를 활용해 저자가 계산하여 제시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감소지역 중 20년(2001~2020년)간의 연평균 인구증감률이 가장 낮은 4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이들 지역 인구의 자연적 증감이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살펴본 결과이다. 이들 사례 지역은 2000년 전후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자연적 감소가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지역 A, B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지점부터 급격하게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사망자 수는 증가하여 자연적 감소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사례 지역 C, D의 경우 2000년 이전부터 자연적 감소가 시작되었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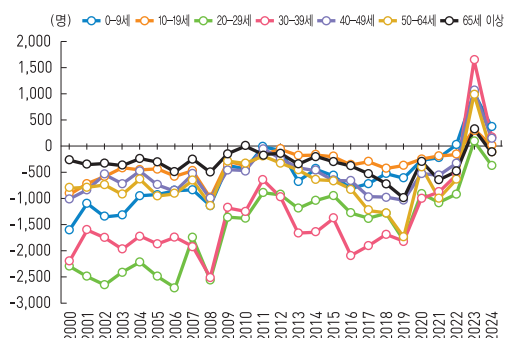
보여준다. 우리나라 총인구의 자연적 감소가 2020년에 시작되었음을 상기하면, 지역 인구의 자연적 감소는 이보다 20여 년 먼저 시작되었으며, 그 시기가 총인구의 자연적 감소보다는 상당히 빨랐음을 알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중 사례 지역 인구의 사회적 증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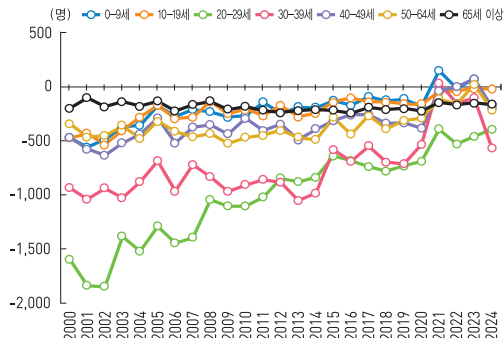
인구감소지역 인구의 사회적 증감이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앞에서 살펴본

[그림 i-3] 인구감소지역 중 사례 지역 인구의 사회적 증감, 2000~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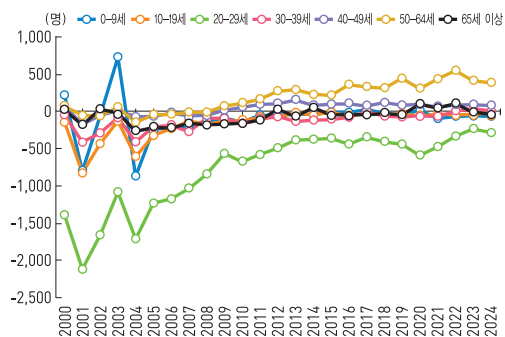
1) A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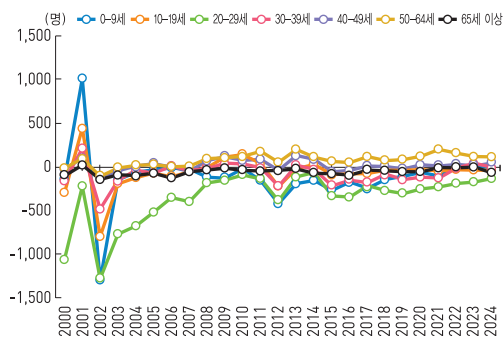
2) B 지역



3) C 지역



4) D 지역



주: 1) 국내인구이동통계를 활용해 저자가 직접 분석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약 25년간 5세 단위 연령대별 순이동인구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이는 [그림 i-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지역은 대체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20~24세(연두색 선), 25~29세(분홍색 선) 연령층의 순유출이 관측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관측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인구감소지역 중 사례 지역의 인구의 사회적 증감이 20대 청년층 순유출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으며, 이러한 순유출이 지속적으로 누적된 결과로서 이들 지역의 인구 감소가 심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이동 특성

인구감소지역 인구의 최근 사회적 증감의 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³⁾을 떠나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현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기준 인구주택총조사 인구 부문 20% 표본 자료에서 현재의 거주지와 1년 전 거주지 정보를 활용하여 이들 지역을 떠나는 이들의 성, 연령대, 종사상지위, 직업 특성 등 여러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해 살펴본다. 분석 결과는, 장인수 외(2021), 장인수, 정찬우(2022)에서 각각 64개 지역 및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로 동일 자료 내 표본의 현 거주지와 5년 전 거주지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대체로 유사하였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와 4년제 대학교 졸업자가 다른 이들에 비하여, 20대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이들 지역을 떠나는 비율이 높았다. 임금근로자 및 무직인 이들이 직업이 있는 이들에 비하여 떠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직업이 있는 이들 중에서는 특히 다른 직업군보다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지역을 떠나는 비율이 높았다(표 i-4).

〈표 i-4〉 인구감소지역 이동자(떠나는 이들)의 특성, 2020

		(%)	
성별		종사상지위	
남성	49.7	임금근로자	49.2
여성	50.3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5
교육 수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7
		무급가족종사자	1.6
초졸 이하	15.6	무직	42.0
중학교 졸업	5.7	직업	
고등학교 졸업	31.5		
대졸 이상	47.2	관리자	0.4
연령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5
		사무 종사자	12.1
		서비스 종사자	7.8
		판매 종사자	4.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1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7.3
		단순노무종사자	4.6
		무직	42.0

주: 1) 2020년 기준 최근 1년 사이 인구감소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경우임.

2) 초졸 이하는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을 합한 비율임.

3) 대졸 이상은 2년제 대학 졸업, 4년제 졸업, 대학원 졸업을 합한 비율임.

출처: 국가데이터처, 「인구총조사」 표본조사 20%, 원자료, 2020.

3) 여기에서의 인구감소지역은 [그림 i-2], [그림 i-3]에서 제시한 4개 사례 지역이 아니라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의미함.

생활인구의 집계적 특성

최근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동법 시행령에 각각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다.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생활인구가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의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인구에 비해 생활인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야 한다. 이는 생활인구의 본래적 특성과 맞물려 지역 활력 제고에 기여할 양적 특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주민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생활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정책적 실효성이 제고될 개연성이 높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 정책을 더 확대하여 추진할 당위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i-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분기별로 발표된 89개 인구감소지역의 2024년

월별 평균 생활인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평균 생활인구는 311,574명이며, 평균 주민등록인구는 53,427명으로 이들 지역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의 배수(생활인구 비율)는 평균 6.37배이다. 또한, 월평균 생활인구 비율이 높은 상위 지역은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멀지 않은 위치에 있으면서 휴양, 관광에 특화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6).

〈표 i-5〉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의 주요 집계적 특성, 2024

(명, 배)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주민등록인구(a)	53,427	31,561	9,124	163,673
생활인구(b)	311,574	157,159	48,489	883,549
비율(b/a)	6.37	2.54	3.07	16.05

출처: 국가데이터처-BIG DATA 활용-시군구별 생활인구: 성별[데이터파일].
https://data.kostat.go.kr/nowcast/popul_living_gender.do에서
 2025.7.15. 인출하여 저자가 계산하여 작성함.

〈표 i-6〉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의 주요 집계적 특성, 2024

(명, 배)				
구분	평균 인구	표준편차	최소 지역	최대 지역
주민등록인구	53,427	31,561	경북 울릉군	대구 서구
생활인구	311,532	157,159	경북 울릉군	경기 가평군
생활인구 비율	6.37	-	경북 영주시	강원 양양군

출처: 국가데이터처, BIG DATA 활용, 2024.

이들 지역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활인구 정책을 추진할 때 실효 가능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크기 때문에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당위성이 있다. 단, 인접한 인구감소지역 간에 생활인구 유입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으로부터 생활인구 유입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구 감소지역 중 월평균 생활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하위 15개 지역)의 평균은 3.97배(최솟값 3.07배, 최댓값 4.28배)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생활인구를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기 쉽지 않은 지역도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표 i-7〉 인구감소지역 중 생활인구 비율 상위 15개 지역, 2024

지역	(명, 배)		
	주민등록인구 평균	생활인구 평균	생활인구 비율
강원 양양군	27,586	442,688	16.05
강원 고성군	27,141	398,743	14.69
경기 가평군	62,401	883,762	14.16
강원 평창군	40,494	539,780	13.33
인천 옹진군	20,164	250,624	12.43
전북 무주군	23,125	240,912	10.42
충북 단양군	27,534	279,834	10.16
강원 정선군	33,806	338,618	10.02
충남 태안군	60,444	577,686	9.56
대구 군위군	22,673	204,554	9.02
전남 담양군	44,923	402,250	8.95
경북 영덕군	33,545	298,609	8.90
강원 홍천군	67,116	594,237	8.85
인천 강화군	68,976	606,323	8.79
경북 청도군	40,938	357,869	8.74

주: 1) 생활인구 비율은 주민등록인구 대비 생활인구의 비율을 의미함.

출처: 국가데이터처, BIG DATA 활용, 2024.

맺음말

본고에서는 한국의 인구변동과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인구 감소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2021년 지정된 89개 인구감소 지역에서 나타나는 인구변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해석하였다. 인구변동은 어느 특정 시점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누적된 결과적 양상이라는 성격을 다분히 띠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인구 규모의 변화와 이와 맞물린 자연적, 사회적 증감을 종단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변동과 관련하여 본고에서 살펴본 주요 관측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는 최근 촉발된 결과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지속된 청년층 중심의 사회적 감소와 자연적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사회적 감소와 관련하여 이들 지역은 상대적으로 20대 연령층과 전문직 종사자에서 떠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생활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체로 수도권과 멀지 않은 위치에 있으면서 휴양, 관광에 특화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인구변동과 관련한 본고의 주요 관측 결과는, 이들 지역의 인구변동을 다각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제20866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564호.

장인수, 우해봉, 박중서, 정찬우. 2021. 「2021년 인구변동 모니터링과 정책과제: 지역 인구 감소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인수, 정찬우. 2022.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변화 특성과 향후 정책 방향”. GRI 연구논총, 24(4), 1-28.

장인수.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향”. 월간 공공정책, 224, 17-19.

국가데이터처. 2021.2.24. 2020년 출생사망통계 잠정결과.

국가데이터처. 2022.7.28.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등록센서스 방식>.